

2017년 4월 10일

제 학년 반 번 이름 :

제목 : ㉞잡채에는 당면이 없었다 / ㉟명품은 언제부터 럭셔리로 대체어가 됐나

㉞

(중략)

잡채(雜菜)도 망가졌다. 잡채는 단어 뜻 그대로 ‘여러 가지 채소 모듬’이다. 채소 모듬에 엉뚱하게 당면(唐麵)이 끼어들었다. 당면이 잡채의 주인공이 되었다. 당면은 한일 강제병합(1910년) 이후 한반도에 등장한다. 중국인들의 당면 기술을 한국인, 일본인이 배우고 평안도 일대에 공장을 세웠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등장한 당면을 넣고 ‘궁중잡채’라고 우기면 당황스럽다.

당면 잡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당면이 잡채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이, 우리의 채소 음식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음식디미방’(장계향, 1670년 무렵 기술)의 잡채는 꿩고기와 열 종류의 채소가 자리하는 ‘여러 채소 모듬 쟁반’이다. (중략)

연포탕(軟泡湯)도 마찬가지. 거품을 의미하는 ‘포(泡)’는 두부를 뜻한다. 연포는 연두부, 부드러운 두부다. 조선시대 조포사(造泡寺)는 왕릉 인근에서 두부를 비롯하여 각종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사찰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연포탕이라 부르는 음식은 ‘낙지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어떤 경로로 연두부탕에 낙지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두부는 빠지고 낙지만 덩그렇다. 우리는 ‘두부 없는 두부탕’을 먹고 있다. 낙지연포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두부탕에서 두부가 빠졌으니 설명하기 모호한 음식이 되었다. (중략)

남해안 어느 지자체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밥상을 재현했다. 밥상에 연포탕이 등장했다. 두부 없는 낙지탕이었다. ‘난중일기’ 1597년 음력 6월 22일 기록에 ‘진짜 연포탕’이 나온다.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에게 초계(경남 합천) 군수가 이른 아침 연포탕을 가지고 나타난다. 전직 삼도수군통제사지만 현재는 ㉠**갓끈 떨어진 신세다**. 접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을 것이다. **‘연포탕을 들고 온 초계 군수의 얼굴에 오만한 기색이 가득했다’**고 적었다. 적어도 이순신 장군의 밥상에는 ㉡**연두부에 새우젓갈을 넣은 연포탕이 있어야 한다**.

**이름은 사물을 규정한다.** 이름은 정체성이다. 음식 이름에 연연하는 것은 한식이 더 이상 우리만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식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먼저 한식의 정체성부터 찾아야 한다. 제대로 된 이름부터 정해야 한다. 스토리텔링, 식품 산업화, 한식 세계화는 그 다음 일이다.

- 황광해, 동아일보(2017-04-05)

㉟

명품≠럭셔리

해외 럭셔리(luxury)가 명품(名品)이란 단어로 통상 불리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1920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일보 기사를 검색한 결과, ‘명품’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기사는 1964년 6월 9일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바이올린) 독주회 관련 기사였다. 그 이후 1974년까지 10년간 한 건도 없다가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연간 10건 정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때 쓰인 명품은 ‘백자·청자 같은 문화재급 도자기’, ‘빈센트 반 고흐 등 국내의 유명 회화 작품’에 붙는 말이었다. 명품의 사전적 의미대로 ‘뛰어난 작품’, 영어로 표현하면 ‘masterpiece’를 명품으로 지칭한 것이다.

명품이 해외 고가 브랜드를 지칭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본격적인 수입 자유화와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해외 브랜드가 쏟아질 무렵으로 보인다. 영어의 ‘럭셔리 굿즈(luxury goods)’는 사전적인 의미대로라면 ‘사치품’ ‘호화품’이 돼야 했었지만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선택된 단어가 ‘명품’이었다. 1987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에 버버리 등 해외 브랜드가 속속 입점한 이후, 1990년 9월엔 서울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이 들어섰다. 1991년 루이뷔통코리아·샤넬코리아, 1994년 프라다코리아 등이 국내에 둥지를 틀면서 이 브랜드들의 광고·홍보 문구는 어느새 ‘명품’으로 통일됐다.

당시 백화점에서 해외 수입 파트를 담당했던 A씨는 “럭셔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 일본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봤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고 고민했다”고 회상했다. 일본에선 럭셔리를 ‘브란도(ブランド·브랜드)’라고 부른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책 ‘럭셔리 코리아’에서 **“사치품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1년 루이뷔통코리아가 한국에 진출한 뒤 국내 첫 홍보 담당 매니저였던 손주연 한피알 이사는 “당시 원문의 ‘럭셔리’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단어를 찾다가 일부 언론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에 명품을 붙이는 걸 보고 공식 보도자료에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라 적었다”고 했다. 그는 “루이뷔통 그룹이 각종 백화점에 매장을 내고 사세를 확장하면서 ㉢**명품이란 단어로 인식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 최보윤, 조선일보(2017-04-05)

세화고 특성화프로그램 **칼럼으로 세상읽기(5회)**

2017년 4월 10일 제 학년 반 번 이름 :

제목 : ㉔잡채에는 당면이 없었다 / ㉕명품은 언제부터 럭셔리인 대체어가 됐나

1. ㉔에서 '초계 군수'는 백의종군 신세가 된 이순신 장군에게 잘 보이려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아래 물음에 답하며 파악해 보시오.

- (1) ㉔은 권력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
- (2) ㉕을 제공한 것은 상대를 후하게 대접한 것인가, 박하게 대접한 것인가? .....
- (3) '초계 군수'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대접하였을까? .....
- (4) '남해안 어느 지자체'가 '두부 없는 낙지탕'을 재현이라고 내놓은 것은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백의종군(白衣從軍) : 벼슬을 잃고 일개 병사가 되어 전장에서 싸움.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 경상·전라·충청 세 도의 해군 통솔 권한을 가지는 무관 벼슬.

2. ㉕에서 루이뷔통 그룹이 ㉕에 심혈을 기울인 까닭을 서술하시오.

3. 아래 제시된 제재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자유롭게 내용과 생각을 서술하시오.

- (1) 어떤 단어가 본래의 뜻과는 동떨어진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다른 사례
- (2)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명명(命名·naming)에 신경 쓴 다른 사례
- (3) 이름만 들었을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부정적이었던 경험
- (4) 이름만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던 경험
- (5) '이름이 사물을 규정한다.'에 대한 나의 생각

내가 고른 제재  (1)  (2)  (3)  (4)  (5) ※자신이 고른 글감에  표시 하세요.

점검일: 2017년 월 일

담임교사 : \_\_\_\_\_ (서명)

2017년 4월 10일 제 학년 반 번 이름 :

제목 : ㉔잡채에는 당면이 없었다 / ㉕명품은 언제부터 럭셔리로 대체어가 됐나

1. ㉔에서 '초계 군수'는 백의종군 신세가 된 이순신 장군에게 잘 보이려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아래 물음에 답하며 파악해 보시오.

- (1) ㉔은 권력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없는 상태
- (2) ㉕을 제공한 것은 상대를 후하게 대접한 것인가, 박하게 대접한 것인가? 박하게 대접한 것
- (3) '초계 군수'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대접하였을까? 잘 보여 봐야 이득도 없으니 대충 대하자.
- (4) '남해안 어느 지자체'가 '두부 없는 낙지탕'을 재현이라고 내놓은 것은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재현이라고 보기에 부적절하다. 당시 실제 이순신 장군의 밥상에 오른 연포탕은 그렇지 않았다.

\*백의종군(白衣從軍) : 벼슬을 잃고 일개 병사가 되어 전장에서 싸움.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 경상·전라·충청 세 도의 해군 통솔 권한을 가지는 무관 벼슬.

2. ㉕에서 루이뷔통 그룹이 ㉕에 심혈을 기울인 까닭을 서술하시오.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사의 매출을 올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㉕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3. 아래 제재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자유롭게 내용과 생각을 서술하시오.

- (1) 어떤 단어가 본래의 뜻과는 동떨어진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다른 사례
- (2)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명명(命名·naming)에 신경 쓴 다른 사례
- (3) 이름만 들었을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부정적이었던 경험
- (4) 이름만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던 경험
- (5) '이름이 사물을 규정한다.'에 대한 나의 생각

내가 고른 제재  (1)  (2)  (3)  (4)  (5) ※자신이 고른 글감에  표시 하세요.

(자유답변)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

(예1) '선비'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비꼬고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 (예2) 오래 된 아파트 이름을 최신 고급 브랜드 아파트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경우. (예3)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가 휴가(holiday)를 길게 즐기러 가서 중간중간 필요하면 적절히 여비도 버는 정도로 느껴졌는데, 실제 다녀 온 누나의 얘기를 들으니 아니었다. (예4) 속칭 '인간사료'라고 일컫는 벌크 제품에서 '사료'라는 표현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품질의 과자 등을 저렴한 값에 대용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실속형 제품들이었다.

점검일: 2017년 월 일

담임교사 : \_\_\_\_\_ (서명)